

---

---

## 가야·신라시기 부산지역 대외교류의 변화와 반전

선석열 / 부산대학교, 사학과

---

---

### 目 次

I. 머리말	IV. 7세기 대외교류의 반전과 거칠산군
II. 가야시기의 대외교류와 독로국	1. 7세기 신라-왜의 친선외교
1. 임나가라의 성립과 독로국	2. 7세기 대외교류상의 거칠산군의 역할
2. 가야시기 독로국의 대외교류	V. 맺음말
III. 신라시기 대외교류의 변화와 거칠산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1. 독로국의 신라 편입	
2. 신라의 대외교류와 거칠산군	

### I. 머리말

한국의 역사상에 있어서 부산지역은 국방의 요충으로서 관방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 교섭 및 문화교류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정학 상으로 부산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일본열도와 가까워 신석기시대 이래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해양을 통하여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거나 들어오

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부산지역이 동남해안에 연해 있으면서 대한해협이라는 항해상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외부와의 교류에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고대사회에 한정해 볼 때 부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차례의 과정을 겪으면서 해당 국가에 귀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삼한시대에는 변한의 독로국으로 존재하였고, 삼국시대 초기에 가야권에 속해 있다가 후기에는 신라권으로 편입되어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열도와의 교섭 양상도 여러 차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왜와 한국 고대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항상 친선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 국가에 따라 또는 시기별로 친선과 적대가 번복되었다. 본고에서는 삼국시대에 한정하여 시기별로 대왜교섭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야시기에 부산지역은 대왜교섭을 어떻게 전개했는가를 살펴보겠다. 부산지역의 독로국은 원래 가야권에 속해 있었는데,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신라에 병합될 때까지 일본열도와 상호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가야는 처음에 일본열도의 여러 세력 가운데 규슈의 세력과 주로 교섭하였으며, 4세기 중엽 이후 백제까지 대왜교섭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섭의 공간적 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주로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활용될 것이다. 한국고대사의 기본사료인 『삼국사기』에는 삼국의 본기 기록은 있으나, 정작 가야본기의 기록이 없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것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및 『진서』 열전의 동이전<sup>1)</sup>의 기록을 참고될 것이다.

둘째, 신라시기에 부산지역은 대외교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겠다. 5세기 중엽을 경계로 부산지역은 가야권에서 신라권으로 편입되어 갔다. 고대국가의 대외관계는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에 따라 지방도 교섭의 양상이 바뀌게 마련이었다. 신라는 왜와 아주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으므로 신라의 한 지방으로 되면서 부산지역의 대외교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삼국사기』의 왜관계 기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 7세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이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등을 비롯하여 『일본서기』의 기록도 참조하겠다. 7세기에 이르면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당시 신라와 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반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의 대외교섭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아울러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부산지역은 신라의 대외교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 II. 가야시기의 대외교류와 독로국

### 1. 임나가라의 성립과 독로국

『삼국사기』에는 신라본기를 비롯하여 고구려본기 백제본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가야본기는 제외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가야본기가 설정되지 않은 것은 중국 唐에서 동방지역에 대한 역사관인 三韓三國論의 영향에 기인하였다. 중국대륙의 남북조를 통

---

1) 이하에서는 『위지동이전』, 『진서동이전』이라 약칭하겠다.

일한 隋를 이어 등장한 唐은 고구려를 조공책봉체제에 끌어들이려 하였으나, 고구려가 이를 거부하자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동방지역이 삼한시대부터 중국에 조공하였음을 들고 삼국이 바로 삼한의 후신임을 내세우게 되었다. 즉 마한-고구려, 변한-백제, 진한-신라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가야를 이미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親唐外交를 지향한 신라는 唐의 삼한삼국론을 받아들여 삼국의 통일을 ‘三韓一統’으로 표현하였고, 신라·고구려·백제 삼국의 역사를 수집 정리한 것이 『삼국사기』의 원전이 되었으므로 가야본기는 설정되지 못하고 신라본기에 부수적으로 편성되어버렸던 것이다.<sup>2)</sup> 이로써 가야에 대한 기본 사료는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신라본기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

(가)1 음즙벌국과 실직곡국이 영토를 다투다가 (파사)왕을 찾아와 재결을 요청하였다. (파사)왕은 이를 어렵게 여겨 생각해 보니, 금관국 수로왕이 연로하여 지식이 많음을 헤아리고 초빙하여 문의하였다. 수로(왕)은 논의하여 분쟁이 일어난 땅을 음즙벌국에 속하게 하였다. 이에 (파사)왕은 6부에 명하여 수로왕을 위한 연회를 열게 하였다. 5부가 모두 이찬으로서 접대하였으나, 유독 한지부만이 지위가 낮은 자로서 접대하였다. 수로(왕)이 노하여 시종 탐하리에게 명하여 한지부주 보제를 죽이고 오도록 하였다. 시종이 도망하여 음즙벌국왕 타추간의 집에 은신하였다. (파사)왕은 사람을 시켜 그 시종을 찾게 하였으나, 타추가 보내지 않았다. 이에 (파사)왕이 노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음즙벌국을 치니 그 나라의 왕과 무리가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곡국과 압독국도 와서 항복하였다.<sup>3)</sup>

2) 선석열, 2003, 「『三國志』 弁辰傳 辰王之 해석 문제」 『역사와 경계』 47, 100쪽.

위의 기록에서 실직국과 음즙벌국이 강역을 다투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삼척지방에 위치한 悉直谷國과 경북 안강에 위치한 音汁伐國은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두 나라가 영토분쟁을 일으켰다는 점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영토가 서로 격절되어 있으면서 양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실제로 영토의 분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해명해야 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서기 102년(파사왕 23)의 사실이 아니라 그 기년을 조정하면 284년에 일어난 사건이다.<sup>4)</sup> 이 시기에는 삼한사회의 내부 변화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도 연동되어 있다.

중국은 3세기 초에 魏·吳·蜀 삼국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265년 西晉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전의 曹魏는 吳·蜀과 대결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에 따른 물자의 수급을 위하여 중국 남방지역과 물산이 유사한 동이족 여러 세력과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西晉의 경우에는 대륙이 통일됨에 따라 남방지역 물산의 유통이 원활해지자 더 이상 東夷 지역과의 교섭의 필요성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반대로 동이족 여러 세력은 사회발전이 진전되면서 선진문물의 수용 욕구가 이전보다 더욱 강해졌으나, 西晉 등장 이후 실제적인 교섭상황은 오히려 약화되어져 갔다. 이로 인하여 나라들 사이의 경쟁과 대립이 첨예화하게 되어갔는데, 위의 사건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의 갈등은 사로국에 의해 중재가 시도되었는데, 여기에 구야국이 개입하여 해결되고 있다.

3) 『삼국사기』 권1, 新羅本紀 제1 婆娑尼師今 23년 8월조.

4) 宣石悅, 1996b, 「新羅 上古紀年の 再調整」 『慶大史論』 9, 22쪽 /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해안, 55쪽.

3세기 후반 에 이르러 중국과의 교섭이 어려워진 이후 각 교섭권 사이에 갈등이 커져 가면서 충돌이 야기된 것이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爭疆’으로 서술되었던 것이다. 즉 (가)-1은 동예의 세력이 진한의 교섭권으로 남하해오자 충돌이 발생하여 구야국을 중심으로 하는 변한의 세력이 이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후 변한 세력과 진한 세력은 갈등이 강해지게 되어 서로 자신의 교섭권을 유지 강화해 나갔는데, 진한의 경우 3세기 말엽부터 4세기 중엽까지 진한의 나라들을 정복하였다<sup>5)</sup>고 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이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한편 변한사회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나,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있어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80년대에 이르면 변한의 낙동강하류역에서는 토기문화를 비롯하여 무기 및 騎乘文化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양이부원저단경호의 등장으로 나타나는 도질토기문화가 출현하였는데, 西晉 남부의 越州窯磁器의 영향으로 나타난 陶器文化는 변한이 서진과 교섭한 사실과 시기적으로 관련된다. 人馬의 희생, 무기를 구부려 부장하는 의례 행위, 몽고발형주·괘갑·기승용마구류 등 북방 유목민족 특유의 습속과 문물이 등장하였다. 도질토기문화의 등장은 변한문화에서 가야문화로 전환하는 획기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외절구연무개고배를 표지유물로 하는 낙동강하류역의 도질토기의 지역성과 김해형목곽묘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묘제의 성립은 대성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의 축조집단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연합을 이룩한 것으로 이해된다.<sup>6)</sup>

5) 선석열, 1996a, 「斯盧國의 小國征服과 그 紀年」 『新羅文化』 12, 105~111쪽.

다시 말하면 3세기말 4세기초에 변한의 구야국과 독로국(가)이 주축이 되어 낙동강하류역에 任那加羅라는 연맹왕국(8)의 탄생을

6) 신경철, 1995, 「제2절 삼국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203~210쪽.

7) 변한의 독로국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거제시로 보는 견해와 부산광역시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거제설의 전문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丁若鏞, 1811, 「三韓總考」 『疆域考』;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66~67쪽, 吉川弘文館; 梁柱東, 1965, 『古歌研究』, 732쪽, 一潮閣; 심봉근, 1991, 『巨濟古縣城址』, 25쪽, 東亞大學校博物館; 도수희, 2008, 『三韓語 研究』, 124~140쪽, 제이앤씨; 이영식, 2010, 「고대 한일교섭의 가교, 거제도 : 가야의 瀆盧國과 신라의 震郡」, 『동아시아고대학』 22, 108~120쪽

부산(동래)설의 전문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丁仲煥, 1970, 「瀆盧國考」 『白山學報』 8, 64~71쪽; 千寬宇, 1976, 「弁辰韓諸國의 位置試論」 『白山學報』 20: 1991, 『加耶史研究』, 65~67쪽, 一潮閣;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78쪽, 一潮閣; 신경철, 1995, 「앞의 논문」 『앞의 책』, 189~191쪽; 선석열, 2002,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89~290쪽; 許在赫, 2005, 「居柒山國의 成長과 發展」 『伽倻文化』 18, 140~141쪽.

그리고 동래를 거칠산군, 장산국, 萊山國과 연결시키고 독로국과는 무관함을 주장하는 논문(최중호, 「기획 : 부산의 문화지도 그리기 ; "동래"와 "기장"의 옛 땅이름 연구」, 『석당논총』50, 2011)도 있다. 기존의 부산설 논자들이 독로국을 거제로 비정하지 않는 근거는 청동기시대까지는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유적이 있으나, 철기시대 이후에는 이렇다 할 유적이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부연한다면 독로국의 '瀆'이라는 의미는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을 의미하므로 거제로 비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미와 어울리는 지역은 독로국의 중심 국읍의 위치를 '瀆'이라는 글자가 잘 보여주는 것이다.

8) 가야지역의 국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白承忠, 1992, 「가야의 용례 및 시기별 분포상황-가야연맹체 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22.

가야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김해에 존재한 나라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金官伽倻 金官國 駕洛國 등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금관가야와 금관국의 명칭은 김해에 존재했던 시기의 것이 아니다. 가락국 또한 신라시기에 표기된 것이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400년 전후 김해를 지칭할 때 임나가라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명칭이다. '任那'는 김해지역을 가리키며 '加羅'는 물가에 있는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김해에 위치한 변한시기의 구야국이 4세기 이후에 명칭을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고대국가는 복속당한 國들의 명칭은 없어지고 村이나 郡縣 등으로 국가 내의 단위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고대국가와

반영하는 것이다. (가)-1의 사건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과 연동되어 바로 변한에 임나가라라는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이룩한 계기의 하나였으며, 그 시기가 280년대라는 점도 다른 요인들과 부합되어 주목되는 바이다.

임나가라는 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가 4세기 후반 백제와 동맹을 맺게 되어 백제-가야-왜 동맹을 결성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와 동맹을 맺은 신라와 대립하면서 399년 임나가라와 왜의 연합군이 신라를 침공하여 왕성(新羅城)을 포위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남정군에 의해 실패로 끝나고 연합군은 패퇴하였다. 이후 임나가라 연맹왕국은 해체되어 세력의 정점에 있던 구야국세력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독로국은 일정 기간 세력을 유지하다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하면 복천동고분군 가운데 21·22호분은 5세기 전엽에 이 지역 최고의 수장묘(王墓)로서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에서 복천동고분군 축조집단으로 그 주도권이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천동 21·22호분에는 신라식의 경주계토기가 출토되는데, 이는 고구려의 지원 아래 신라가 낙동강하류역으로 진출하여 독로국에도 점차 영향력을 행사해 갔음을 알

---

달리, 연맹왕국은 국들이 연합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이 있으면서 각각의 고유한 국명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야국과 독로국이 주축이 되어 연맹왕국이 성립되었다하더라도, 각각의 국명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연맹왕국이 해체되면 각각의 세력은 그들 국명을 그대로 존속한다. 가야의 국가 발달과정에 대해 연맹체론 지역연맹체론 지역국가론 초기국가론 등 실로 다양하여 그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白承忠, 2007, 「加耶의 地域聯盟論」 『지역과 역사』 17), 필자도 다음 기회에 이를 검토해볼 예정이다.

수 있다. 5세기 중엽에 축조된 복천동 10·11호분은 독로국의 마지막 왕묘로 추정된다.<sup>9)</sup>

다시 말하면 독로국은 3세기말 4세기초에 임나가라 연맹왕국의 주축세력으로 존재하다가 광개토왕 남정으로 구야국세력이 쇠퇴한 이후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5세기 중엽 신라에 의해 병합될 때까지 가야세력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 2. 가야시기 독로국의 대외교류

이제 독로국이 왜와 교류한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변한과 달리 왜는 『진서동이전』에 倭傳이 立傳되어 있으나, 중국의 서진과 교류한 사실이 없다. 3세기 중엽까지 왜는 중국의 後漢 및 曹魏와 교류하였으나,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까지 중국과 교류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는 한반도 남부의 변한과 교류하였으며, 가야시기에도 계속 교류하고 있었다. 3세기 중엽 이전의 삼한시대에 왜가 삼한사회와 교섭한 지역은 경남 남해안 일대였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따르면 청동기시대의 문화가 일본 야요이 문화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 중에서 일본의 突帶文土器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역은 보성강과 낙동강 사이의 한반도 동남내륙지역이었음에서<sup>10)</sup> 주민의 이동과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sup>11)</sup>

9) 신경철, 1995, 「앞의 논문」 『앞의 책』 235~241쪽.

10) 안재호,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57쪽.

11) 이후 삼한시대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야요이계 토기 유물에 대해서는 安在晧洪 潛植, 2000,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渉史 研究」 『韓國民族文化研究』 12, 172~173쪽의 <표 4> 韓半島 出土의 彌生土器系 遺物 참조.

이후의 관련 유적으로는 사천시 녹도유적, 고성군 동외동패총, 김해시의 김해패총·내동지석묘·지내동옹관묘, 부산광역시의 조도패총·온천동유적·내성유적, 경주시 조양동유적 등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한 내성유적에는 독로국과 왜의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삼한시대 전기인 기원전 2세기경에 왜인들이 내성유적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sup>12)</sup> 최근에 이와 관련된 발굴성과가 기장군에서도 나왔다.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고촌리의 생산유적에서 목태흑적칠고배 6점과 파수부장병형용 등의 왜계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일본 북부구주의 元岡遺跡과 大阪府의 池上遺跡·鬼虎川遺跡의 유물과 같은 계통으로 야요이시대 후기와 고분시대 전기, 즉 3세기 전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내성유적과 고촌리 생산유적에서의 왜계유적이나 유물의 존재는 독로국이 변한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빨리 왜와 교섭한 곳 중의 하나임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나)-1 國에는 철이 나는데, 韓과 濊 및 倭가 모두 좇아서 가져간다. 모든 매매에는 모두 철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또한 낙랑군과 대방군에도 공급한다.<sup>14)</sup>

(나)-2 帶方郡에서 倭로 갈 때 해안을 둘러서 바닷길로 간다. 韓의 國들을 지나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면 [倭의] 북쪽 對岸인 狗邪韓國에 이르는데, 모두 7千餘 里이다. 처음으로 한 바다를 건너 千餘里를 가면 對馬國에 이른다. 그 大官을 卑狗라 하고 그 다음을 卑奴母離라 한다. 사는 곳이 바다로 막힌 섬

12)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0, 『東萊福泉洞萊城遺蹟』, 59~63쪽.

13)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445~447쪽.

14) 『위지동이전』 변진전.

으로서 넓이가 4百餘里 가량 되는데, 땅이 산으로 험하고 울창한 숲이 많아 道路가 짐승이 다니는 것처럼 좁다. 千餘戶가 있으나, 좋은 농토가 없어 해산물을 먹고 스스로 살아가며 배를 타고 남북으로 다니면서 식량을 구입하였다. 또 남쪽으로 瀚海라고 하는 바다를 千餘里로 건너면 一支國에 이른다.…… 3千餘家가 있으며 오히려 농토가 있어 농사짓더라도 식량이 부족하여 또한 남북으로 다니면서 식량을 구입하였다. 또 바다를 건너 千餘里를 가면 末盧國이 이른다.…… 동남쪽으로 육로로 5百里를 가면 伊都國에 이르는데,…… 千餘戶가 있다. 대대로 王이 있으나, 모두 女王國에 속해 있으며, 帶方郡의 使者가 왕래하면서 항상 머무는 곳이다.<sup>15)</sup>

위의 기록은 삼한시대의 대외교류에 관한 것이다. (나)-1은 철을 매개로 한 교류이며, (나)-2는 중국 曹魏의 군현인 대방군에서 일본열도의 北部九州까지의 교통로이다. 이러한 교류방식은 그 후에도 지속된다. 특히 (나)-2의 교통로 가운데 구야국 및 독로국-對馬國-一支國-末路國의 교통로는 삼한시대 이후에도 가장 주요한 교통로였다.

(나)-3 瀆盧國은 倭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sup>16)</sup>

부산의 독로국은 왜의 대마국과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접하였다고 하는데, 위의 교통로를 이용하여 일본열도로 가는 일은 김해의 구야국보다 오히려 유리하였을 것이다. 앞서 내성유적의

---

15) 『위지동이전』 왜인전.

16) 『위지동이전』 변진전.

예를 들었듯이 삼한시대뿐 아니라 가야시기도 독로국은 대외 교류가 활발하였다.

가야시기에 왜계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부산광역시의 동래패총·북천동고분군·조도패총·화명동고분군, 김해시의 예안리고분군·양동리고분군·부원동패총·봉황대유적·대성동고분군, 창원시의 성산패총·삼동동고분군·용원유적, 경주시의 월성로 가-29·30호묘 등이 있고, 광주광역시의 소명동 17호 주거지, 군산시 어방리 남전패총 등이 있다. 왜계유물 출토 유적의 입지조건은 해안지대의 무덤을 비롯하여 조개더미와 주거지이며, 해당 유적은 대부분 부산·김해·창원 등 동남해안 일대에 90% 이상 분포하였다. 종류로는 토기·석기·철기·거울·동축·동과·조개제품 등이며, 토기는 북천동고분군(57·42호묘)에 집중되고 청동제·석제품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 집중 부장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 북천동고분군 외에 화명동고분군에도 왜계토기가 출토되었다.<sup>17)</sup>

이들 유적은 대부분 김해와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에서 한반도 낙동강하류역 일대가 대외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열도의 경우 대외교류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 기존의 견해에 의하면 왜의 대외교류 중심지는 삼한시대에 北部九州였다가 삼국시대 전기 가야시기는畿內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 시기의 왜계토기는 土師器[하지키]系土器로 대표되는데,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하지키계 토기가 일본열도 가운데 어느 지역 계통인가가 왜의 대외교류 중심지를 규정짓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최근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3세기말~4세기초에도 北部九州

17) 홍보식, 2006, 「한반도 남부지역 왜계 요소」 『韓國古代史研究』 44, 24쪽.

系나 山陰系의 토기가 대부분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며 畿內系는 거의 없는 사실에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 초기까지도 여전히 北部九州가 여전히 교류를 주도하면서도 교류의 양상이 점차 다원화 되었으며, 이후에는 중심적인 역할을 상실하여 일본열도 내 교류 창구 중의 하나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3세기말~4세기초 낙동강하류역에 들어온 하지키계 토기는 왜가 철 구입의 대가 가운데 노동력으로 제공된 왜인집단의 소산물이며, 그 후손들이 가야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토기도 재지화 되어 제작 사용되었던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점은 문헌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倭國亂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내)4 나라마다 시장이 있어 교역하는데 大倭가 이를 감독한다. 女王國의 북쪽에는 특별히 하나의 大率을 두어 여러 나라들을 검찰하게 하니 그 나라들이 이를 두려워하였는데, 항상 伊都國을 다스렸다. …… 그 나라(왜국)는 본래 남자로서 왕으로 되었는데, 70-80년이 지나 왜국이 어지러워져 서로 공격하고 치게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이에 함께 이름이 卑彌呼라는 한 여자를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鬼道를 섬겨 무리를 迷惑할 수 있었다. …… 247년(정시 8) (帶方郡)太守 王頌가 임지에 도착했다. 倭女王 卑彌呼와 狗奴國의 男王 卑彌弓呼는 평소 불화했는데 …… 비미호가 죽자 …… 남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라 사람들이 불복하여 서로 죽였고 이때 죽은 자가 천여 명이었다. 다시 卑彌呼의 宗女

18) 申敬澈, 2000, 「三國時代 韓半島南部와 北部九州의 相互交流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韓國民族文化研究』 16, 59~60쪽.

인 壹與를 세워 13세의 나이로 왕으로 즉위하자 나라 안이 마침내 안정되었다.<sup>19)</sup>

이 기록에 의하면 2세기 후반 일본열도에서 倭國亂이 일어나 여왕을 세워 안정되었으며, 이후 여왕국은 北部九州에 大倭와 大率을 파견하여 교역을 감독 검찰하였다고 한다. 일본학계에서 이는 北部九州 연합세력과 여왕국이 주도한 畿内 연합세력의 교역 주도권을 놓고 전개된 쟁란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sup>20)</sup> 이를 직접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있다.<sup>21)</sup> 위의 기록에서 여왕국인 邪馬臺國이 北部九州에서 교섭을 통제한 것은 대방군을 통한 曹魏와의 교섭에 한정될 뿐이며, 철을 중심으로 하는 변한과의 교역은 여전히 北部九州가 주도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畿内 연합세력이 적극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sup>22)</sup> 다만 畿内 연합세력은 北部九州를 매개로 한 對中交渉을 통해 새로운 묘제나 三角緣神獸鏡 등 정신적·이념적 문화를 창출한 것이다.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체제는 4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가야와 왜의 교류 산물은 北部九州系·山陰系 畿内系(또는 瀬戸内系)인데, 北部九州系가 가장 많이 출토되며, 나머지 지역의 계통은 가야와 직접적으로 교류한 산물이 아니라 北部九州 세력이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sup>23)</sup> 이 점 또한

19) 『위지동이전』 왜인전.

20) 白石太一郎, 1993, 「古墳成立論」 『新版古代の日本』①, 角川書店 / 2000, 『古墳と古墳群の研究』, 塙書房, 29쪽.

21)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24쪽.

22) 宣石悅, 2004, 「加耶の鐵と倭の南北市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127, 137쪽.

23) 홍보식, 2006, 「앞의 논문」, 32~33쪽.

문헌의 연구와 부합된다.

4세기 후반에 이르면 대외교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백제의 참여이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점수한 313년 이후 백제는 이에 대응해야 했는데, 371년 평양성전투를 통해 고구려의 위력을 알게 되면서 남방으로 지원세력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었다. 백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신라에 접근하여 동맹을 도모하였으나, 당시의 국제정세를 검토한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게 되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것은 바로 가야와의 관계 모색이었다. 백제는 가야가 일본열도의 北部九州와 오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국제관계는 고구려-신라 동맹과 백제-가야-왜 동맹으로 양분되었다.

4세기 후반의 교류는 낙동강하류역의 임나가라와 北部九州와의 관계가 지속된 반면에, 외교 중심의 교섭은 백제와畿內 사이에 새로이 전개되었다. 이와 연동되어 낙동강하류역의 임나가라 연맹에서는畿內 연합세력과 정치적인 유대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대성동 13호분에는 왜의 대형 전방후원분의 소유량을 증가하는 왜계 위세품, 즉 파형동기 6점을 비롯하여 다량의 벽옥제 석제품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이 정치적인 대외교섭과 철을 매개로 한 교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4)</sup>

그러나 400년에 있었던 동아시아 최대의 사건인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남정은 임나가라의 대외교류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5세기 초엽 이후 왜계토기가 낙동강하류역에서 발견되지

24) 申敬澈, 1995,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26~27쪽.

않는다. 이 같은 왜계요소의 소멸은 이주 왜인들이 가야지역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양자간의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영산강유역의 경우에는 왜계토기가 함평 소명동 1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옹의 구연부 1조각 외에 왜계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일본열도의 대외창구인 후쿠오카의 西新町遺蹟에서 한반도계 토기 가운데 80% 이상이 영산강계이다. 이 사실은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서남해안의 주민들이 北部九州로 대거 이주하였음을 반영한다. 5세기 전반 일본 열도에는 須惠器(스에키)라는 새로운 토기가 생산되는데, 초기 스에키의 특징으로 볼 때 가야의 도공들이 건너가 생산하였던 것이다.<sup>25)</sup>

남정 이후 영산강유역뿐 아니라, 임나가라연맹이 와해되면서 일부 주민들도 일본열도로 이주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 광개토왕릉비에 의하면 400년 전후 왜가 399년(영락 9)과 404년(영락 14)에 백제에 군대를 보내고 400년(영락 10) 신라를 공격하여 수도의 왕성을 포위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sup>26)</sup> 이후 왜의 경우에도 백제와 임나가라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군대가 고구려에 의해 철저히 격파당한 이후 한반도와의 교섭을 중단하게 되면서 양자간의 교류는 한동안 중단되었다.

가야시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는 구야국과 독로국이 주축이 되어 임나가라 연맹왕국이 성립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삼한시기 이래 양자간의 교류는 낙동강하류역과 북부구주였으나, 일본 열도의 경우 4세기 후반부터는 백제-가야-왜 동맹의 성립에 따라

25) 홍보식, 2006, 「앞의 논문」, 36~37쪽.

26)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韓國古代史金石文』, 12~14쪽.

畿內지역으로 옮겨졌고 북부구주는 여전히 교류의 거점 역할을 유지하였다. 임나가라 내 교류의 중심은 구야국의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이었는데, 王者로서의 위엄을 과시하는 위세품 중의 일부를 畿內로부터 받아들였다. 교역의 매개는 주로 가야의 철이었으며, 왜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것 중에 왜인을 보내었다. 부산 독로국의 경우 왜계토기의 존재로 보아 삼한시대 이래 왜인들이 이주하거나 왕래하였고, 4세기 중엽에 이르러 왜계토기가 재지화하는 경향으로 보아 왜인은 가야의 사회구성원이 되어 갔다. 광개토왕 남정의 여파로 임나가라연맹이 와해되면서 양자간의 상호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가야인 등 한반도 남부의 주민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 스에키문화를 창출하였다.

### Ⅲ. 신라시기 대외교류의 변화와 거칠산군

#### 1. 독로국의 신라 편입

광개토왕 남정 이후 독로국의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독로국은 신라의 지방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 논의의 중심은 부산지역의 중심 분묘군인 복천동고분군의 문화적 양상이 어느 시기에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개되었다. 복천동고분군의 문화적 양상은 원래 가야계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시기에 신라계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라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 중에서 초점이 되었던 것은 복천동고분군 가운데 신라계의

出字形金銅冠이 출토된 同 21·22호분의 축조시기 문제이다. 즉 出字形金銅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라의 영향력이 미치다가 영역 내로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4세기 후반설,<sup>27)</sup> 5세기 초엽설,<sup>28)</sup> 5세기 후반설<sup>29)</sup> 등이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이 編年案의 근거는 경주 황남대총 北墳의 年代觀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출토된 금관은 신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신라가 斯盧國을 모태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여 유일한 朴·昔·金 3성왕통 가운데 김씨의 내물왕계에 의해 통합된 왕권이 성립되는 것은 訥祗王代(417~458)에 이르러서이며, 이때부터 내물왕계 김씨왕실이 왕위계승체계를 확립한 시기이다.<sup>30)</sup> 따라서 문헌기록을 통해서 보면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이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중엽 이후부터이며, 신라가 그 영역 내에 재지세력에게 금동관·환두대도·과대 등의 위세품을 사여하는 시기는 자연스럽게 5세기 후반대에 해당될 것이다.

400년 광개토왕 남정으로 낙동강하류역의 세력은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王墓의 위상을 지닌 동래 복천동 21·22호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구려·신라의 가야 진출에 따라 김해 대성동 1호분을 끝으로 이 고분군의 축조집단은 세력이 약화되고 복천동고분군 축조집단으로 패권이 이동하였던 것이다. 5세

27) 崔秉鉉, 1993,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慶州 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0.

28) 李熙濬, 1996, 「낙동강 이동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定型性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한일고고학공동연구회 심포지움.

29) 鄭澄元·洪潛植, 1989, 「釜山地域의 古墳文化-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30) 宣石悅, 『앞의 책』, 2001, 164~170쪽.

기 중엽의 복천동 21·22호분에서 정형화된 신라양식의 장경호가 출토된 점에서 낙동강하류역에 신라양식 토기문화가 처음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5세기 후엽의 복천동 10·11호분에서는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마지막 王墓였고, 이후의 주도권은 6세기 전엽까지 연산동고분군 축조집단으로 옮겨갔다. 창녕·성주 등 영남 지역의 토기문화에서 볼 때 이 시기 부산지역은 친신라계가야의 일부 세력으로 변모하였다. 이들 세력이 신라의 정치연합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완전히 복속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적인 주장권은 인정받고 있었다.<sup>31)</sup> 이와 같이 5세기초부터 6세기 전엽까지 신라와 부산지역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볼 때, 신라는 진한의 나라들을 복속하여 곧 바로 지배하지 못하고 피복속지배층 가운데 유력자들에게 위세품을 하사하여 그들의 독자성과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일정기간 간접지배를 하였으며, 그 후 점차적으로 중앙의 통치력을 관철해 나갔다. 먼저 중앙의 권력이 강화된 이후 상층의 피복속지배층을 중앙으로 초치하여 복속지역의 지배기반을 약화시킨 다음, 복속지역을 세분화 하여 州-郡-村으로 서열화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실시하였다.

5세기를 전후하여 신라는 복속지역에 대한 조직적인 통제를 실시하였는데, 해당지역의 여러 村 가운데 전략적·교통적으로 중요한 村을 거점으로 삼거나 城을 축조하여 일부 주요 거점지역에는 道使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통치를 수행하였다. 505년 지증왕 때에 이르러 여러 城·村을 관할할 수 있는 상위의 행정단위로서 州·郡을 확정하고 軍主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31) 申敬澈, 1995, 「앞의 논문」, 46~48쪽.

부산지역이 신라영역으로 편입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참조된다.

(다)-1 東萊郡은 원래 居柒山郡인데, 경덕왕이 명칭을 고친 것으로 지금(고려)도 그대로 (동래군이라) 부른다. 領縣이 둘이다. 東平縣은 본래 大甌縣인데, 경덕왕이 고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동평현이라) 부른다. 機張縣은 본래 甲火良谷縣인데, 경덕왕이 고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기장현이라) 부른다.<sup>32)</sup>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부산지역의 경우 瀆盧國을 居柒山郡, 大甌縣, 甲火良谷縣으로 편제하였다. 과거 국읍이나 읍락이었던 여러 村 가운데 처음에는 국읍지역에만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나, 지방제도가 점차 체계화됨에 따라 일부 주요 거점 村에도 관리와 군대를 파견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즉 瀆盧國의 국읍이었던 곳에는 국명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山名인 居柒山으로써 村名으로 삼아 郡으로 편제하여 부산의 동남부인 동래지역의 여러 村을 관할케 하였다. 또한 부산지역의 서남부에는 大甌縣(부산진구 당감동)을 두고 동부에는 甲火良谷縣(기장읍)을 두어 해당지역의 여러 村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부산지역은 신라국가의 한 지역으로 편제되어져 갔던 것이다.

## 2. 신라의 대왜교류와 거칠산군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 의하면 5세기를 전후하여倭는 신라의 왕경이나 남쪽 변경을 빈번하게 침공하였다. 이를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32)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1 良州 東萊郡條

33) 아래 <표 1>의 내용은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3에 기록된 것을 정리하였다.

<표 1> 마립간시기의 신라·왜 기사표

번호	연대(왕대)	내용	지명
1	364년(내물왕 9)	4월 왜병의 침입에 도함산에 위장병을 두고 부현에서 북병으로 격퇴함	도함산 부현
2	392년(내물왕 38)	5월 배를 타고 온 왜인이 금성을 포위하니 농성하고 퇴각하자 기병으로 추격하고 독산에서 보병과 함께 협격하여 대패시킴	금성 독산
3	402년(실성왕 1)	3월 왜국과 통호(通好)하고 미사흔을 볼모로 보냄	
4	405년(실성왕 4)	4월 왜병이 명활성 공격에 실패하여 기병으로 독산에서 요격함	명활성 독산
5	407년(실성왕 6)	3월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입함	동쪽 변경
6	407년(실성왕 6)	6월 왜인이 동쪽 변경을 노략질함	동쪽 변경
7	408년(실성왕 7)	2월 왜인의 대마도 군영 설치에 대책을 논의함	대마도
8	415년(실성왕 14)	8월 왜인과 풍도에서 싸워 승리함	풍도
9	418년(눌지왕 2)	가을 박제상이 왜국에 가서 미사흔을 탈출시킴	대마도
10	431년(눌지왕 15)	여름 왜병이 동쪽 변경을 침입하여 명활성을 포위했다가 퇴각함	동쪽 변경 명활성
11	440년(눌지왕 24)	왜인이 남쪽 변경을 노략질함	남쪽 변경
12	440년(눌지왕 24)	6월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입함	동쪽 변경
13	444년(눌지왕 28)	4월 왜병이 금성을 포위하자 왕이 출전했으나 독산에서 패배함	금성 독산
14	459년(자비왕 2)	4월 왜인이 100여 척으로 동쪽 변경을 습격하여 월성을 포위함에 격퇴시킴	월성해구
15	462년(자비왕 5)	5월 왜인이 활개성을 습격하여 1천 명을 노략질함	활개성
16	463년(자비왕 6)	2월 왜인의 삼량성 공격에 매복하여 격퇴하고 주변에 두 성을 쌓음	삼량성
17	476년(자비왕 19)	6월 왜인의 동쪽 변경 침입을 격퇴하고 2백 명을 살획함	동쪽 변경

18	477년(자비왕 20)	5월 왜인이 다섯 길로 침입, 곧 퇴각함	
19	483년(소지왕 4)	5월 왜인이 변경을 침입함	변경
20	487년(소지왕 8)	4월 왜인이 변경을 침입함	변경
21	493년(소지왕 15)	7월 임해진 장령진을 설치하여 대비함	임해진 장령진
22	497년(소지왕 19)	4월 왜병이 변경을 침입함	변경
23	500년(소지왕 22)	3월 왜인이 장봉성을 함락함	장봉성

위의 표에서 볼 때 왜의 신라침입 양상에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세기 전반까지 왜는 신라의 왕경인 경주나 수도권인 울산 방면으로 공격하였고, 5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의 왕경 방어체제가 정비되자 수도권으로 침입하지 못하고 낙동강 하구나 신라 동남해안의 남쪽 변경을 자주 쳐들어 왔다.<sup>34)</sup> 그 변경은 다름아닌 낙동강하구에서 동남해안 일대의 거칠산군 지역이었다.

일반적으로 신라를 공격한 왜병은 당시 일본열도의 여러 세력 가운데 九州倭였다. 왜병은 北部九州에서 출발하여 이키(壹岐)를 거쳐 쓰시마(對馬)에 거점을 두고 거칠산군 해안으로 침입하여 낙동강하구나 동남해안을 노략질하였던 것이다.

(태)1 자비마립간 6(463)년 2월 倭人이 敵良城을 침입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갔다. 왕이 벌지와 덕지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길에 매복하여 기다렸다가 쳐서 크게 패퇴시켰다. 왕은 倭人이 여러 번에 걸쳐 강역을 침범함으로써, 국경 부근에 두성을 쌓았다.

34) 宣石悅, 2005,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釜大史學』 28:29합집, 277~282쪽.

(래-2 소지마립간 15(493)년 7월 임해진과 장령진의 두 軍鎭을 두어 倭賊에 대비하였다.

(래-3 같은 왕 22(500)년 3월 倭人이 장봉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sup>35)</sup>

이들 사료를 검토하기에 앞서 관련된 지명의 위치를 비정해 보도록 하겠다. 敵良城의 경우 양산시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臨海鎭과 長峯鎭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臨海鎭의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에 ‘三國有名未詳地分’에<sup>36)</sup> 수록되어 그 위치를 비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722년 성덕왕이 毛伐郡城을 쌓아 일본 적의 길을 막도록 한<sup>37)</sup> 임관군을 근거로 제시하여 현재의 경북 경주시 외동면 모화리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sup>38)</sup> 臨海라는 명칭과 비교할 때 그곳은 바다와 무관하다. ‘臨海’ 즉 바다에 임한다는 의미와 당시 왜의 침입이 변경이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신라 수도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변경의 동남해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5세기 중엽 이전에 왜는 신라 왕경과 그 주변의 울산만 등 신라 동변의 수도권으로 침입하였으나, 신라의 중앙지배체제가 갖추어진 460년대 이후부터 수도권에서 방향을 돌려 주로 신라의 낙동강하구 동안 방면으로 침입하고 있다.<sup>39)</sup>

또한 최근의 견해에 의하면 『고려사』에 보이는 고려말기 왜구

35) 이상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제3.

36) 동권 37, 지리 4.

37) 동권 7, 신라본기 8 성덕왕 21년 10월조.

38)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上, 49쪽, 을유문화사.

39) 선석열, 2005,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부대사학』 28:29합집, 269~281쪽.

의 동해안 침입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관련 지명을 근거로 장령진(장봉진)을 경주시 황성동의 楸院 근처에 있는 長嶺院이라 하고 임해진을 경북 포항시 월포로 비정하였다.<sup>40)</sup>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전쟁 양상을 보면 초기 5세기 전반까지는 수도권을, 후기에는 수도권 바깥의 동남해안과 낙동강 하구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도 참조될 것이다. 정작 長峯[嶺]鎭 및 臨海鎭 2鎭의 설치는 493년이므로, 영일만에 왜가 침입하지도 않은데 2鎭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의문이다. 이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왜구가 동해안으로 침략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점도 참조될 것이다.<sup>41)</sup>

일반적으로 왜가 신라를 침공한 방향을 막연히 ‘東邊’으로 표기한 점을 근거로 침공 방향을 동쪽 해변으로 이해하여 관련 지명을 동해안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를 중앙으로 설정하면서 각국에 대한 방향표기는 고구려와 말갈을 북쪽으로 백제를 서쪽으로 왜를 동쪽으로 설정하였고, 가야는 남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의 방향과는 다르다. 현재의 방위로 볼 때 각국의 신라에 대한 공격지역은 가

40) 전덕재, 2012,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173~175쪽, 제4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41) 『고려사』에 보이는 고려말기 왜구의 침입기록은 40회가 넘는데, 그 중 대부분의 침입은 서해안과 남해안이며, 포항의 영일만 일대는 6회에 불과한 점에서 영일만은 고려시대까지도 왜의 주요 침입지역이 아니었음도 아울러 참조된다. 조선 초기 세종대에 영일만 일대에 만호영을 설치한 것은 동해안의 울산을 거점으로 경상좌수영체제를 마련하고 그 예하의 만호영 중 2개가 영일만에 설치된 것인데, 이는 왜구가 동해남안을 거쳐 침략하는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 동남해안 일대 전체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왜구가 영일만 일대에서 노략질한 것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어 17세기에 이르러 부산시 수영구에 경상좌수영 및 산하의 만호영을 이전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야는 서쪽으로 백제는 서쪽 및 서북쪽이고 고구려 및 말갈은 서북쪽·북쪽·동북쪽이며, 왜는 동해가 아니라 동남해안에 해당된다.<sup>42)</sup>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면 臨海鎭의 위치로서는 기장지역의 서부리산성을 들 수 있다. 서부리산성은 기장 읍내는 물론 울산·동래와 기장 앞바다까지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왜구에 대한 해안 감시를 위하여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이므로<sup>43)</sup> 임해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長峯鎭은 長嶺鎭으로 잘못 기재되기도 하지만, 長嶺鎭의 위치가 함남 영흥으로<sup>44)</sup> 비정되므로,<sup>45)</sup> 왜의 침입지역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임해진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長峯鎭은 463년 왜가 양산의 삼랑성을 침입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축성되고 군진을 설치한 것이므로, 낙동강하구의 황산진에서 양산지구대에 이르는 어느 지점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463년에 이르러 왜는 기존의 침입 방향과 달리 낙동강하구를 통하여 신라를 침입하고 있다. 5세기 중엽 이전에 왜는 신라 수도와 그 주변의 울산만으로 침입하였으나, 460년대부터 신라 동변의 울산 지역보다는 방향을 돌려 신라의 낙동강하구 방면으로 침입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라는 관련 국경지역에 두 개의 성을 축조하여 즉각 대응해 나갔다. 463년 이전의 빈번한 침입과 달리 이후 493년까지 왜는 간헐적으로 공격하였다.<sup>46)</sup> 493년에 신

42) 宣石悅, 1994, 「『三國史記』新羅本紀 上代 百濟關係記事의 檢討와 그 紀年」 『韓國古代史研究』 7, 317~318쪽.

43) 나동욱, 1993, 「釜山地域의 城池에 관한 검토」 『博物館研究論集』 2(부산직할시립박물관), 23~25쪽

44) 『高麗史』 권58, 지리지 3 東界 和州條 “和州本高句麗之長嶺鎭”

45) 宣石悅, 1993a, 「『三國史記』「新羅本紀」 上代 靺鞨記事의 檢討」 『釜大史學』 17, 92쪽.

라는 연해 지역에 두 개의 군진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되어 왜의 공격은 2회에 그쳤다. 497년 왜가 변경을 침공한<sup>47)</sup> 이후 500년에 연변의 군진 중의 하나인 長峯城을 함락시켰다고 하였으나, 이후 왜의 침공이 없는 점으로 보아 長峯城은 곧 회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이후 왜가 부산지역으로 진출한 기록이 『일본서기』에 보이는데, 남가라 즉 가락국(금관가야)의 멸망에 관한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4 이 달에 사신을 보내 [내조해왔던] 己能末多 干岐를 진송하였다. 아울러 임나에 있는 近江毛野臣에 명하여, “[임나가] 아 된 바를 잘 물어서 서로 의심하는 점을 화해시켜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毛野臣이 熊川[分註: 一書에 임나의 久斯牟羅라 한다]에 이르러 신라, 백제의 두 나라 왕을 불렀다. 新羅王 佐遲利는 久遲布禮를 보내고 백제는 恩率 彌騰利를 보내 모야신이 있는 곳에 가도록 하고 두 왕이 스스로 오지는 않았다. 毛野臣이 크게 노하여 두 나라 사신을 꾸짖어 “소가 大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다. 어떤 이유로 두 나라 왕이 몸소 와서 천황의 칙을 받지 않고 경솔하게 사신을 보내는가. 지금 그대의 왕이 스스로 와서 칙언을 듣겠다고 하여도 나는 칙언을 말하지 않겠다. 반드시 쫓아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久遲布禮와 恩率 彌騰利는 마음 속으로 두려움을 품고 각기 돌아가 왕에게 아뢰었다. 이에 따라 신

4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3 자비마립간 19년 6월·20년 5월조 및 소지마립간 4년 5월·8년 4월조.

47) 동권 3, 신라본기 3 소지마립간 19년 4월조.

라는 다시 上臣 伊叱夫禮智 干岐[이사부]를 보내어 군사 3000 명을 거느리고 와서 칙언을 듣고자 하였다. 毛野臣이 멀리서 무기를 갖춘 군사 수천인이 있는 것을 보고, 웅천으로부터 임나의 己叱己利城에 들어갔다. 伊叱夫禮智 干岐는 多多羅의 들판에 이르러 돌아가지 않고 3개월이나 기다렸다. 번번이 칙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끝내 칙언을 말하지 않았다. 伊叱夫禮智가 끌고 온 사졸들이 촌락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였다. 毛野臣의 종자 河內馬飼首 御狩와 길을 지나쳤다. 御狩가 다른 문에 들어가 숨어서, 구걸하는 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손을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구걸하는 자가 보고서 “삼 개월을 기다려서 칙언을 듣고자 기다려도, 말하지 않았다. 칙언을 듣는 사자를 괴롭히는 것은 곧 속여서 上臣을 죽이려고 한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본 그대로를 자세하게 上臣에게 말하였다. 上臣이 4개의 마을을 약탈하고[分註: 金官, 背伐, 安多, 委陀의 네 마을이다. 一本에 多多羅, 須那羅, 和多, 費智의 네 마을이라 한다],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이 “多多羅 등의 네 마을을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sup>48)</sup>

(라)-5 異斯夫는 성이 김씨이며, 내물왕의 4세손이다. 智度路王 [지증왕] 때에 지방관이 되어 居道の 권모를 답습하여 加耶를 속여서 멸망시켰다.<sup>49)</sup>

(라)-6 金官國主 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 즉 맏아들은 奴宗, 둘째는 武德, 막내는 武力이다. [가족]을 데리고 나라의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항복해 왔다.<sup>50)</sup>

48)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529) 4월 是月條.

49) 『삼국사기』 권44, 열전 4 異斯夫傳.

50) 동권4, 신라본기 4 法興王 19년(532)조.

이들 기록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라)-4의 『일본서기』의 관련 기록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료비판을 통해 살펴보겠다.

(라)-7 近江毛野臣은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파괴된 南加羅·喙己呑을 다시 일으켜 임나에 합치려고 하였다. 이때 筑紫國造인 磐井이 반역할 것을 음모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몇 년이 지났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틈만 보고 있었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으라고 하였다. …… 이런 까닭으로 毛野臣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서 체류하고 말았다.<sup>51)</sup>

(라)-8 이달에 近江毛野臣을 安羅에 사신을 보내어 조칙으로 신라에게 권하여 南加羅·喙己呑을 다시 건립하도록 했다.<sup>52)</sup>

(라)-7·(라)-8의 기록에서 527년 당시에 아직 망하지 않은 가락국과 탁기탄을 재건하라고 한 것은 기록의 허구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7의 기록대로 본다면 왜가 가락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태를 예견하고 近江毛野臣을 보내어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즉 (라)-8의 近江毛野臣 파견은 가락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532년 가락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0년째 되던 541년 안라에 파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sup>53)</sup> 이는 또한 『일본서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년의 오차에 기인한 것이므로,<sup>54)</sup> 近江毛野臣의 파견에 대해서는 달리 이해해야 한다.

51)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1년(527) 6월조.

52)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529) 3월 是月條.

53) 三品彰英, 1966, 「〈繼體紀〉의諸問題」 『日本書紀研究』 2, 24~29쪽, 塙書房.

54) 三品彰英, 1966, 「앞의 논문」, 44~49쪽.

(태)7에서 近江毛野臣이 파견된 목적은 가락국 등의 멸망 위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일본열도 내의 사건이자<sup>55)</sup> 야마토왜(大和倭)와 규슈왜(九州倭)의 주도권 쟁탈전으로서 筑紫國王 磐井이 일으킨 전쟁 소위 ‘이와이(磐井)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sup>56)</sup>

(태)7에서 신라가 이와이에게 뇌물을 주어 近江毛野臣의 군사를 막도록 하였다는 것도 허구이다. 신라본기의 왜관계기사에 나타난 왜의 실체는 야마토왜가 아니라 규슈왜이므로,<sup>57)</sup> 신라가 규슈왜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사부가 거느린 군사 3천 명의 군세를 보고 近江毛野臣이 싸우지 않고 퇴각하였다고 한 것은 가락국의 위기와 관련하여 신라군과 왜군이 서로 교전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近江毛野臣의 전승기록과 上臣伊叱夫禮智 干岐, 즉 이사부의 전승기록은 시차를 달리하는 별도의 사건으로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점도<sup>58)</sup> 이 때문이다.

55) 林屋辰三郎, 1952, 「繼體・欽明朝內亂の史的分析」 『立命館文學』 88, 津田左右吉, 1963, 『日本古典の研究』, 岩波書店. 坂本太郎, 1964, 「繼體紀の史料批判」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文獻篇)』, 東京大學出版會.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書店.

56) 선석열, 2011, 「신라의 남부가야 진출과 일본열도 왜의 대응」 『지역과 역사』 29, 72쪽.

57) 선석열, 200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의 실체」 『인문학논총』 13-1 (경성대), 104~112쪽. 고대 일본의 지배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야마토왕권이 신라와 직접적으로 교섭한 것은 야마토왕권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와 對新羅 外交의 적극성이 나타난 7세기 전반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규슈왜는 2세기 倭國亂을 계기로 邪馬臺國에게 對韓半島 교섭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對韓半島 교섭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왔다(선석열, 2004, 「加耶의鐵と倭の南北市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137쪽).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듯이 400년을 전후하여 백제와 동맹을 맺었던 세력은 야마토왜이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쓰시마를 거쳐 신라를 공격하였고 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세력은 여전히 규슈왜였던 것이다.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볼 때 近江毛野臣이 야마토 왜왕의 명령을 받아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한 것은 규슈왜 세력의 대항에 대응한 조치일 뿐이며, 일본열도 내부의 쟁란이 마무리될 즈음 한반도 남부에서 가락국 등이 신라의 위협을 받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마토왜는 이러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열도 내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편 대외적으로 야마토왜는 6세기 초부터 섬진강유역의 기문-대사 지역으로 진출한 백제와의 관계개선과 교섭에 치중하고 있었을 뿐이며,<sup>59)</sup> 탁기탄국과 가락국이 멸망할 때까지 야마토왜는 남부가야 지역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540년대에 이르러서야 안라로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 등과 공조하여 신라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IV. 7세기 대왜교류의 반전과 거칠산군

##### 1. 7세기 신라·왜의 친선외교 전환

그런데 562년 대가야가 멸망한 이후 왜는 한동안 신라가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북부 규슈를 비롯한 서일본 각지에 屯倉을 설치하고 那津(후쿠오카)에 담당 관가를 설치하여 대비하였다. 575년에 소위 '任那의 調'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양국간의 교류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기록의 왜 관계 기사에서

58)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195~199쪽, 해안.

59) 선석열, 2009, 「백제의 기문-대사 점령과 그 의의」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297~298쪽, 주류성출판사.

미심쩍은 기록이 보인다. 왜가 사도성을 공격하니 석우로가 화공술을 써서 패퇴시켰다<sup>60)</sup>고 하는 것이다. 왜가 공격하였다는 사도성은 일반적으로 경상북도 영덕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서기』 기록에 왜군이 帶沙江으로 가는 도중에 이르렀던 곳인 沙都嶋<sup>61)</sup>와 대조해 보면 거제도도 비정된다. 즉 왜와 신라의 사도성 전투는 3세기 전반이 아니라 가야제국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62)</sup>

‘임나의 조’ 기록에서는 任那使가 보이고 있으나, 그들이 관청했다는 부명과 관등명을 보면 신라식의 部名에도 부정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백제식 관등명이 혼선을 빚고 있어 의문으로 된다. 관련기사가 推古朝의 국가의식이 『일본서기』 편찬 단계의 新羅敵視觀·蕃國觀과 융합되어 역사적 사실로서 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사를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sup>63)</sup>

또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이 시기의 왜와의 교류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외교기사로서 중국과의 교류기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또한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수집·정리하여 남겨진 기록을 토대로 하여 『삼국사기』가 편찬되었을 것이므로, 신라의 中國重視觀·倭輕視觀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60)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2 조분이사금 4년 5월·7월조

61) 『일본서기』 권17, 계체 9(515)년 2월 시월조

62) 선석열, 1993b, 「『삼국사기』 「신라본기」 가야관계기사의 검토—초기기록의 기년추정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24, 34쪽.

63) 이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아래의 논고를 참고하고, 본고의 방향과는 무관하므로 생략하겠다.

鄭孝雲, 1995, 『古代韓日政治交涉史研究』, 110~120쪽, 學研文化社.

宣石悅, 2008, 「加耶滅亡前後の新羅と倭の交流」 『古代日本の異文化交流』, 612~614쪽, 勉誠出版.

당시 왜와 신라의 실제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관계를 생각해 볼 때 가야멸망을 전후하여 양국이 묵은 감정을 견지하여 그대로 적대시하기보다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즉 왜가 백제나 가야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바로 철자원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입수하려 한 것이며, 가야 멸망 후에도 왜는 백제뿐 아니라 신라와도 교류가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7세기 왜의 입장에서선 선진문물의 수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백제 일변도의 외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다각적 외교로 전환하였다. 그 중에서도 왜가 주목한 것은 신라였다. 더욱이 왜는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지역인 경남 남해안을 지나가야 했는데, 적대국인 신라가 6세기 중엽 이후 가야를 병합하여 남해안을 장악하고 있어 대외항로를 확보할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도성전투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후 왜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대외교통로 상에 있던 적대국인 신라와 적극적으로 통교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64)</sup> 일본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국외로부터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화와 중국화에 대한 주도권을 신라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양국의 교류가 증대된 것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까지 일본이 율령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여러 문물을 수용

64) 연민수, 2004, 「7世紀 동아시아 情勢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48~52쪽.

하여 율령국가 체제를 갖추게 된 것<sup>65)</sup>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왜가 필요한 것 가운데 철자원은 백제로부터 입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데, 475년 한성함락을 계기로 한강유역을 상실당하면서 주요 철산지도 빼앗겼을 것이다. 따라서 철자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가야 전역을 차지한 신라와의 교류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편 신라의 경우에도 왜와의 외교를 단절하는 것보다 적절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국제정세에서 판단해 보아도 유리하였음은 물론이며, 왕실이나 귀족층의 권위 유지를 위한 물자 가운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남방인 일본열도의 풍부하고도 진귀한 물산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2와 같이 신라는 사신 파견을 통해 聘禮하였으며, 특히 불교문화의 전수를 통해 일정한 교류관계를 맺어 갔던 것이다. 이 처럼 대외외교가 활성화되자 신라는 575년(진흥왕 36)경에 설치된 대외외교 전담부서인 倭典을 621년(진평왕 43) 領客典으로 개편하고 651년(진덕여왕 5)에 장관인 丞을 2인 두고 662년(문무왕 2)에 차관인 卿도 2인을 두어<sup>66)</sup> 그 업무를 점차 강화하도록 하는 등 양국의 공적 교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양국간에 성립된 외교방식을 送使外交라고 한다. 7세기 초까지 對唐外交는 백제의 협조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으나, 신라의 남해안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장거리 근해항로는 매우 위험하였다. 그러므로 왜가 대당외교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을 장악하고 있는 신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였

65) 김은숙, 1998,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9, 282쪽, 국사편찬위원회.

66) 『삼국사기』 권38, 직관지 상, 領客府.

다. 7세기 당시에 왜의 정계에서도 田中臣을 대표로 하는 친신라 파가 등장하게 되어 632년 이래 중단된 遣唐使 파견을 통한 대당외교를 신라의 협조를 얻어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왜의 사절단을 바로 唐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머물게 하여 신라에 대한 우호를 쌓게 하고 돌아올 때에도 안내하여 무사히 외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sup>67)</sup> 이에 즈음하여 신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치게 되었다.

(마)-1 신라가 上臣 大阿滄 김춘추 등을 보냈다. 國博士 高向黑 摩呂와 小山中 中臣連押雄을 送使하였다. 와서 공작과 앵무새를 바쳤다. 인하여 춘추로써 불모로 삼았다. 춘추는 모습이 수려하고 담소를 잘 하였다.<sup>68)</sup>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 속에 신라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처음 외교는 실패하였다. 642년 백제가 신라 서쪽의 40여 성을 빼앗고<sup>69)</sup> 고구려와 합동으로 당항성을 공격하여 대당외교루트를 차단하는 한편, 신라의 대백제 요충지인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죽죽 등 많은 신라인들이 전사하였고,<sup>70)</sup> 특히 사위인 도독 김품석과 딸 고타소랑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sup>71)</sup> 이에 위기와 비통함을 느낀 김춘추

67) 연민수, 1997, 「개신정권(改新政權)의 성립과 동아시아 외교」 『일본역사연구』 6 : 『앞의 책』, 472~474쪽.

68) 『日本書紀』 권25, 孝德紀 大化 3년 4월조.

6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 7월조.

70) 동권5 同王 11년 8월조.

71)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조.

는 즉각 고구려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연개소문에 의해 억류되었다가 겨우 탈출하게 되었다. 김춘추는 외교활동의 실패를 맛보게 되면서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치밀한 안목을 가지게 되어 신라의 외교적인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대외외교이다. (㉞)-1에서 보듯이 왜의 김춘추에 대한 인상은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김춘추는 이때 왜로 건너가 송사외교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대신에 왜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외교성과를 올렸다. 7세기 중엽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고 위기에 몰려 있었으며, 이 상황에서 신라의 배후의 적인 왜마저 신라를 침공할 수 있는 위협을 해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김춘추는 648년 唐에 들어가 나당동맹을 성사시킴으로써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 신라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2. 7세기 대외교류상의 거칠산군의 역할

610년대에 이르러 신라와 왜의 관계는 적대관계에서 친선관계로 대외관계상에서 커다란 反轉이 이루어져 대외교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을 7세기 이전에 한정하여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7세기 신라의 대외교역

비교	시 기	내 용	출 전
수출 품목	671년(天智 10)	水牛, 山鷄	『일본서기』 권27
	680년(天武 8)	金, 銀, 鐵鼎, 錦, 絹, 布, 皮, 馬, 狗, 騾, 駱駝, 刀, 旗	동권 29
	682년(天武 10)	金, 銀, 銅, 鐵, 錦, 絹, 鹿皮, 細布, 霞錦, 幡, 皮	동권 29
	686년(天武 14)	馬, 狗, 鸚鵡, 鵲	동권 29
	686년(朱鳥 원년)	細馬, 騾, 狗, 鏤金器, 金, 銀, 霞錦, 綾羅, 虎豹皮, 藥物, 屏風, 鞍皮, 絹布	동권 29
	688년(持統 2)	金, 銀, 絹布, 皮, 銅, 鐵, 佛像, 彩絹, 鳥馬	동권 30
	689년(持統 3)	兒彌陀像, 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綵帛, 錦, 綾	동권 30
수입 품목	668년(天智 7년)	絹, 綿, 韋	동권 27
	671년(天智 10)	絹, 絁, 綿, 韋	동권 28
	673년(天武 원년)	船	동권 28

<표 2>의 내용에 의해 당시 신라·왜의 공적 교류의 시기는 7세기 후반과 8세기 전반까지 집중되고 광물·동물·고급 견직물류 등의 다양한 물품이 교역되었고, 신라에서는 고급 견직물류를 보내었고 일본에서는 거친 綿<sup>72)</sup>을 비롯하여 견직물을 신라에 보낸 점에 그 특징이 있다.<sup>73)</sup>

72) 당시의 綿이란 목화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명주솜을 가리킨다. 명주솜은 누에고치를 삼각뿔 모양의 관 위에 대고 누르면서 떠나가면 납작하고 둥글게 된다. 이것을 여러 겹으로 어긋지게 포개어 놓은 다음 포대기나 옷감에 넣어 바늘로 누비는 방식으로 하여 솜옷이나 누비이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겨울의 방한용 옷이나 이불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고려말에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와 목면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의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표 2>에 보이는 교역 물품을 통해 일본<sup>74)</sup> 귀족들의 기호품이 무엇이었던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일본 귀족들은 자국산의 거친 비단보다 중국제나 신라제 고급비단을 매우 선호하였고, 모피 및 가공품뿐만 아니라 鑲金器와 같은 금은세공품 등의 선진 문화물품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 아미타불상·관세음보살상·대세지보살상 등의 신라 불상은 일본 불교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신라의 수공업 기술을 새로이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일부 약물이나 향료·염료와 같은 것은 신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신라 상인이 唐 등으로부터 중계무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일본은 서역 문물을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신라를 통해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나 신라에서 나지 않는 특별한 종류가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앵무새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산이며, 낙타·노새 등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산지대에서 서식하는 특산물이다. 이와 같은 물품은 唐으로부터 들어온 진귀한 것인데, 그럼에도 신라는 그 중 일부의 동물을 일본에 선물로 보낸 것이다. 이러한 진귀한 물품을 선물로 보내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관리나 사용법 등의 정보도 함께 알려줌으로써 왜인들이 세계를 보는 시야를 확대시켜주는 문화적 지리적 효과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신라가 일본으로 하여금 신라의 외교적 위력

73) 이종봉, 2003,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9, 232~233쪽.

74) 670년(문무왕 10)에 일본열도의 국호가 倭國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으므로(『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문무왕 10년조), 670년 이후부터는 일본으로 표기하겠다.

이나 위상을 일깨워주어 신라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효과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세기에 이르러 신라와 왜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제 양국이 어떤 교통로로 교류하였는가, 아울러 부산 즉 거칠산군이 대왜교섭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신라의 대왜교통로는 경주-울산-기장-兄邊(부산시 남구)-대마도-이키-하카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이용되었다. 이후의 항로는 한려수도와 같이 안전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따라 나니와(難波)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다음의 기록이 참조된다.

(㉸)-1 文林郎 裴世清은 백제를 건너 竹島에 이르러 남쪽으로 耽羅를 바라보며 都斯麻國을 지나면 아득히 먼 큰 바다위에 있게 된다. 또한 동쪽으로 一支國에 이르고 또 竹斯國에 이르며, 다시 동쪽으로 가면 秦王國에 다다른다. 여기서 10여 國을 지나 해안에 도착한다.<sup>75)</sup>

(㉸)-2 태종대는 동래부 남쪽 30리인 절영도의 동쪽에 있다. 바닷물이 둘러 흐르고 돌다리 하나가 있어 놀러온 사람들이 겨우 지나간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태종[武烈王]이 활쏘는 곳으로 삼았다고 하여 이로 인해 이름하였다고 한다.<sup>76)</sup>

(㉸)-1의 기록은 608년 왜의 遣隋使 小野妹子(오노 이모코)의 귀국을 위한 隨行使인 隋의 文林郎 裴世清이 백제의 竹島에 도착

---

75) 『隋書』 권81, 倭國傳.

76) 『東萊府誌』 古蹟條.

하여 地文航法을 이용하기 위해 남쪽으로 제주의 耽羅를 바라보며 방향을 바꾸어 都斯麻國(쓰시마)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一支國(이키)을 지나 北部九州의 竹斯國(筑紫國)에 이르는 노정은 대외교류의 통상적인 교통로이다. 이러한 통상의 교통로를 지나 동쪽으로 가서 도착한 秦王國은 왜의 도래씨족인 하타씨(秦氏)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sup>77)</sup> 세토나이카이에 위치한다. 이 끝자리에 오사카만(大阪灣)이 있다.

(㉸-2의 기록은 신라 국왕 태종무열왕이 거칠산군의 남단인 영도에 왔던 고사를 통해 태종대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해 태종무열왕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후 전국의 명승지를 탐방하다가 절영도 동쪽 끝의 태종대에 들러 궁인들과 함께 울창한 수풀과 수려한 해안절경에 심취하여 잠시 소일하며 활을 쏜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78)</sup> 그러나 삼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한 신라국왕은 태종무열왕이 아니라 문무왕이며, 태종무열왕이 이곳에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 거칠산군의 태종대라는 곳은 일본의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곳임은 모두 잘 알고 있다. ㉸-1의 기록과 대비해 보면 이곳에 올 때의 칭호는 김춘추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때로 판단되므로, 태종무열왕이라고 한 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 고사를 기록에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 김춘추는 642년의 대고구려외교가 실패로 끝난 뒤 배후의 적인 왜의 동향을 의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거칠산군으로 왔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춘추가 거칠산군에 왔던 것은 이전부터 거칠산군이 대외교통로로서 중요

77) 山崎雅稔, 2009, 「고대 한일 항로와 대마도」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101쪽.

78)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1, 『釜山市史』 4, 914쪽.

한 중간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위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쓰시마에서 하카타만에 이르는 노정이 신라의 대외교통로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항로 중에서 부산과 관련된 지역은 신라 수도의 외항인 울산에서 쓰시마의 중간 지점인 기장군과 兄邊이다. 기장군은 원래 甲火良谷縣이었는데, 경덕왕 때에 機張縣으로 개명하였다.<sup>79)</sup> 機張이란 ‘국가의 기밀(機)을 베푼다(張), 시행한다’는 의미인데,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장은 신라의 對倭 방어를 위해 설치한 임해진이 있었다. 兄邊은 신라 제사제도 가운데 中祀 중 四海<sup>80)</sup>의 하나인 南海 海神에 대한 제사이다. 四海는 신라의 해양제사로서 신라의 사신이나 무역선들이 항해할 때 주요 해양 거점에 이르러 선박을 수리하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하여 海神에게 제사를 거행한 곳이다. 신라는 남해안항로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열도로 항해할 때 형변에 이르러 제사의례를 행하고 항해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야 항해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7세기 신라는 대외외교나 대외교역을 행할 때 부산의 기장 해안을 거쳐 兄邊에 이르러 항해를 점검한 다음,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쓰시마로 항해 갔으므로 부산의 연해는 중요한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사의례가 오키노시마(沖ノ島)에서 행해진 점<sup>81)</sup>도 주목된다.

79) 『삼국사기』 권34, 지리지 1 良州 東萊郡條.

80) 『삼국사기』 권32, 제사지.

81) 이 유적은 4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걸쳐 국가의 평안과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해양제사가 행해졌는데, 특히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중엽까지는 岩上祭祀가 행해지고 5세기 후반부터 7세기에 걸쳐 岩陰祭祀가 행해졌다고 한다(佐田茂, 2000, 『沖ノ島祭祀遺跡』, 22~26쪽,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V. 맺음말

이상에서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를 가야시기 신라시기, 그리고 7세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로 나누어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시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이다. 부산지역은 지정학상 일본열도와의 교류는 신석기시대부터 간단없이 전개되어 왔다. 부산의 독로국은 3세기말 4세기초에 임나가라 연맹왕국의 주축세력으로 존재하였고, 대외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삼한시기 이래 양자간의 교류는 낙동강하류역과 북부구주였으나, 4세기 후반부터 백제-가야-왜 동맹의 성립에 따라畿内지역으로 옮겨졌다. 또한 북부구주는 여전히 교류의 거점 역할을 유지하였다. 임나가라 내 교류의 중심은 구야국의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이었는데, 王者로서의 위엄을 과시하는 위세품 중의 일부를畿内로부터 받아들였다. 교역의 매개는 주로 가야의 철이었으며, 왜는 그 대가를 지불한 것 중에 왜인 노예를 보내었다.

부산 독로국의 경우 왜계토기의 존재으로 보아 삼한시기 이래 왜인들이 이주하거나 왕래하였고, 4세기 중엽에 이르러 왜계토기가在地化 하는 경향으로 보아 왜인은 이곳의 사회구성원이 되어 갔다. 광개토왕 남정의 여파로 임나가라연맹이 와해되면서 양자간의 상호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가야인 등 한반도 남부의 주민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 스에키문화를 창출하였다.

둘째, 신라시기의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와 부산의 거칠산군의 상황에 대해서이다. 5세기 중엽 부산지역의 독로국은 신라세력으로 편입되고, 6세기 초 지방제도의 시행에 따라 군·현으로 편제

되었다. 이 시기의 대왜교류는 신라와 왜의 지속적인 적대관계로 인하여 경제적·문화적 성격의 교류보다 정치적·군사적 성격의 교류로 변화해 갔다. 463년 왜인의 삼량성 공격으로 신라는 남쪽 변경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부산지역에 두 성을 쌓았고, 493년에는 이들을 군진으로 개편하였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황산진을 사이에 두고 금관가야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관련 기록으로 나오는 『日本書紀』의 529년(繼體紀 23) 近江毛野臣 기록은 허구로서 6세기 초에 왜는 적대관계에 있는 신라의 거칠산군에 오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7세기 대왜교류의 반전과 거칠산군의 역할에 대해서이다. 6세기 후반부터 왜는 신라와 적대관계를 해소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7세기에 이르러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송사외교라는 친선관계로 반전되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왜는 대당외교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을 장악하고 있는 신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신라도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으로 위기에 몰려 있었으므로 신라의 배후의 적인 왜마저 신라를 침공할 수 있는 위협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대왜교섭에서는 신라가 고급 비단뿐 아니라 외국의 진귀한 물자도 중계하여 전달함으로써 왜는 신라의 외교적 역량을 인식하게 되어 신라를 침략할 의지가 꺾였다. 또한 왜는 수입에 대한 대가로 과거에 노예를 제공하는 대신 명주솜이나 저급한 비단을 막대하게 지불하였다.

신라는 대왜외교나 대왜교역을 행할 때 대왜교통로는 경주-울산-기장-兄邊-대마도-이키-하카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이용되었다. 부산의 기장 해안과 兄邊은 대왜교섭뿐만 아니라 대중국

교섭에서도 중요한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대중국교섭에 대한 고찰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는 다음의 과제로 삼겠다.

### 【참고문헌】

#### (사료)

- 『삼국사기』
- 『삼국유사』
- 『고려사』
- 『신증동국여지승람』
- 『동래부지』
- 『삼국지』
- 『진서』
- 『일본서기』

#### (논저)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0, 『東萊福泉洞萊城遺蹟』
-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1, 『釜山市史』 4.
- 宣石悅, 2001,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 震檀學會.
-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 鄭孝雲, 1995, 『古代韓日政治交渉史研究』, 學研文化社.
- 鬼頭清明, 1976,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1949(初版); 1956(普及版), 吉川弘文館,

- 白石太一郎, 2000, 『古墳と古墳群の研究』, 塙書房.
- 山尾幸久, 1977, 「任那の調」 『日本國家の形成』, 岩波新書.
-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 村上恭通, 1998, 『倭人と鐵の考古學』, 青木書店.

(논문)

- 김은숙, 1998,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 나동욱, 1993, 「釜山地域の 城池에 관한 검토」 『博物館研究論集』 2, 부산직할시립박물관.
-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韓國古代史金石文』, 기락국사적개발연구원.
- 白承忠, 1992, 「'가야' 의 용례 및 시기별 분포상황- '가야연맹체' 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역사와 경계』 22.
- 宣石悅, 1993a, 「『삼국사기』 「新羅本紀」 上代 靺鞨記事의 檢討」 『釜山大史學』 17.
- 宣石悅, 1993b, 「『삼국사기』 「신라본기」 가야관계기사의 검토-초기 기록의 기년추정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24.
- 宣石悅, 1994, 「『三國史記』 新羅本紀 上代 百濟關係記事의 檢討와 그 紀年」 『韓國古代史研究』 7.
- 宣石悅, 1996a, 「斯盧國의 小國征服과 그 紀年」 『新羅文化』 12.
- 宣石悅, 1996b, 「新羅 上古紀年の 再調整」 『慶大史論』 9.
- 申석열, 2002,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 宣石悅, 2003, 「『三國志』 弁辰傳 辰王之 해석 문제」 『역사와 경계』 47.
- 宣石悅, 2004, 「加耶の鐵と倭の南北市糶」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 宣石悅, 2005, 「마립간시기 신라와 왜의 관계」 『釜山大史學』 28·29합집.

- 선석열, 2008,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왜의 실체」 『인문학논총』 13-1(경성대).
- 선석열, 2009, 「백제의 기문대사 점령과 그 의의」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출판사.
- 선석열, 2011, 「신라의 남부가야 진출과 일본열도 왜의 대응」 『지역과 역사』 29.
- 申敬澈, 1995,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 申敬澈, 1995, 「제2절 삼국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부산광역시 동래구.
- 申敬澈, 2000, 「三國時代 韓半島南部와 北部九州의 相互交流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韓國民族文化研究』 16.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安在皓·洪潛植, 2000,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涉史 研究」 『韓國民族文化研究』 12.
- 연민수, 1997, 「개신정권(改新政權)의 성립과 동아시아 외교」 『일본 역사연구』 6.
- 연민수, 2004, 「7世紀 동아시아 情勢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
- 李永植, 1989, 「所謂任那日本府の語義について—‘任那日本府’ 分析の前提—」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哲學·史學篇—』 16 (別冊).
- 이종봉, 2003,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8.
- 李熙濬, 1996, 「낙동강 이동지방 45세기 고분자료의 定型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한일고고학공동연구회 심포지움.
- 전덕재, 2012, 「4-6세기 신라의 동해안지역 경영」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제4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鄭澄元·洪潛植, 1989, 「釜山地域의 古墳文化-墓制와 高杯를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 崔秉鉉, 1993, 「新羅古墳 編年の 諸問題-慶州 月城路·福泉洞·大成洞古墳의 상대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30.
- 홍보식, 2006, 「한반도 남부지역 왜계 요소」 『韓國古代史研究』 44.
- 吉田晶, 1975, 『古代國家の形成』, 岩波書店.
- 山崎雅稔, 2009, 「고대 한일 항로와 대마도」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 三品彰英, 1966, 「〈繼體紀〉の諸問題」 『日本書紀研究』 2, 塙書房.
- 西本昌弘, 1990, 「倭王權と任那の調」 『ヒストリア』 129.
- 白石太一郎, 1993, 「古墳成立論」 『新版古代の日本』①, 角川書店.
- 新川登龜男, 1988, 「日羅間の調(物産)の意味」 『日本歴史』 481.
- 林屋辰三郎, 1952, 「繼體・欽明朝內亂の史的分析」 『立命館文學』 88.
- 佐田茂, 2000, 『沖ノ島祭祀遺跡』,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津田左右吉, 1963, 『日本古典の研究』, 岩波書店.
- 坂本太郎, 1964, 「繼體紀の史料批判」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文獻篇)』, 東京大學出版會.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삼국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에 대해 3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삼국시대의 부산지역의 독로국은 가야권에 속해 있다가 신라권으로 편입되었다. 신라는 왜와 처음에는 적대관계에 있었으나, 7세기에 이르러 친선관계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도 세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가야시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에 대한 문헌 기록이 거의 없어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살펴보고, 『삼국사기』와 『위지동이전』 그리고 『진서동이전』의 기록과 부합한 사실을 밝혔다. 3세기말 4세기초에 부산의 독로국은 임나가라 연맹왕국의 주축세력으로 존재하였다.

이 시기 대외교류는 낙동강하류역과 북부구주가 중심지였다. 4세기 후반부터 백제-가야-왜 동맹이 성립되자 교류의 중심은畿內지역으로 옮겨졌으나, 북부구주는 여전히 교류의 거점 역할을 유지하였다. 400년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임나가라연맹이 약화되어 세력의 중심은 독로국으로 옮겨졌으나, 대외교류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다음은 신라시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이다. 이 시기에는 『삼국사기』에 관련 기록이 상당수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세기 중엽 독로국은 신라에 편입되고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었다. 신라는 왜와 적대관계에 있었으므로,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도 경제적·문화적 성격의 교류보다 정치적·군사적 성격의 교류로 변화해 갔다. 463년 왜인의 삼랑성 공격으로 인하여 신라는 남쪽 변경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부산지역에 두 성을 쌓았고, 493년에는 이들을 군진으로 개편하였다. 6세기 초부터 신라와 금관가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였으나, 『일본서기』의 기록과 달리 왜는 낙동강하구로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6세기에 이르러 부산지역은 대외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7세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이다. 이 시기의 대외교류에 대한 자료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많은 기록이 있다. 7세기에 이르러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이 일어났다. 신라와 왜의 관계는 송사외교라는 친선관계로 반전되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라는 대외외교나 대외교역을 행할 때 부산지역이 중요하였다. 신라의 대외교통로는 경주-울산-기장-형변-대마도-이키-하카타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이용되었다. 부산의 기장 해안과 형변은 중요한 중간기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핵심주제어 :** 독로국, 대외교류, 주민 이동, 친선관계, 적대관계, 임해진, 장봉진, 형변, 해양제사, 중간기착지

**【Abstract】**

---

**加耶・新羅時期 釜山地域 對倭交流の變化と反轉**

宣石悅 / 釜山大学校, 史学科

---

今度、研究は三国時代の釜山地域の對倭交流について、三時期で分けて考察した。三国時代の釜山地域の瀆盧國は、加耶圈に属しているが、新羅圈へ編入去れた。はじめに、新羅は倭と敵對關係にあったが、七世紀になると、親善關係に反轉された。従って、釜山地域の對倭交流も三度の変化を嘗めた。

加耶時期の釜山地域の對倭交流についての文献記録がめったにないので、考古学的な研究成果を通して探し、『三國史記』と『魏志東夷傳』及び『晋書東夷傳』の記録と符合したことをあきらかにした。三世紀末～四世紀初になると、釜山の瀆盧國は任那加羅聯盟王國の主軸勢力に存在した。この頃、對倭交流は洛東江下流域と北部九州が中心地であった。四世紀後半、百濟-加耶-倭の同盟を成立になると、交流の中心は畿内へ移動したが、なお北部九州は交流の拠点の役割を保っていた。400年、廣開土王南征によって、任那加羅聯盟王國は壊れて、その勢力の中心は瀆盧國へ移されたが、對倭交流の中心は他の地域になった。

次に、新羅時期の釜山地域の對倭交流である。この時期の對倭交流についての資料は、『三國史記』に關連記録がかなり見えるので、五世紀中頃、瀆盧國は新羅へ編入去れて、居柒山郡に編制された。新羅は倭と敵對關係に置かれた。それゆえ、釜山地域、即ち、居柒山郡の對倭交流も經濟的・文化的性格の交流というよりも、政治的・軍事的性

格の交流に変わって行った。463年、倭人の敵良城の攻撃によって、新羅は南方辺境の戦略的な重要性を新たに認識しながら、釜山地域に二つの城を築いて、493年にはこれらの城を軍鎮への改編が行おこなわれた。六世紀初以来、新羅と金官加耶の間に戦争が発生したが、『日本書紀』の記録と違って、倭は洛東江河口に向かって来ていなかった。このために、六世紀の居柒山郡では對倭交流が行なわれていなかった。

おわりに、七世紀の對倭交流と居柒山郡の役割である。この時期の對倭交流についての資料は、『三国史記』と『日本書紀』に多く見える。七世紀になると、東アジアに国際情勢の変動が起った。新羅と倭との関係は、送使外交という親善関係へ反轉がおこって、交流が盛んに行なわれた。新羅は對倭外交と對倭交易を行なう時、居柒山郡は重要な地域であった。新羅の對倭交通路は慶州-蔚山-機張-兄邊-對馬島-壹岐-博多に続いている海上交通路が利用されていた。居柒山郡の海岸と兄邊は重要な中間寄着地の役割を隨行したのである。

**核心主題語：**瀆盧國, 對倭交流, 住民の移動, 親善關係, 敵對關係, 臨海鎮, 長峯鎮, 兄邊, 海洋祭祀, 中間寄着地

투 고	심 사	완 료
2012. 10. 29	2012. 12. 4	2012. 12. 15